

와이브로/HSDPA 전망 © HSDPA

SKT · KTF, 3Q 서비스 돌입 ... 이젠 3.5G 최소 3.6M까지 등장, 시장성 주목 지지부진 WCDMA 수요 견인할까?

SK텔레콤과 KTF 등 W-CDMA 사업자들의 2006년 화두는 단연 'HSDPA'라고 할 수 있다. 3.5G 이동통신으로 일컬어지는 HSDPA는 이론상 최대 속도 14Mbps, 실제 속도 역시 3Mbps 이상을 구현할 것으로 보여 화상전화 정도만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WCDMA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가 주도하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4월경 서비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동사들의 HSDPA 서비스개시도 당초 예상보다 대거 앞당겨 빠르면 7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글 | 심우성 기자(아이티타임스, wsung@itn.co.kr)



SK텔레콤과 KTF는 와이브로 보다 HSDPA가 시장활성화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속도 면에서 와이브로에 크게 뒤지지 않는데다 부가서비스 등 활용도는 훨씬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선 와이브로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HSDPA는 커버리지가 넓어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로밍에 HSDPA는 최적화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삼성전자가 1.8Mbps 속도보다 두배 빠른

3.6Mbps 속도를 구현하는데 성공, HSDPA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3.6Mbps 속도의 HSDPA 휴대폰은 MP3 10곡을 다운로드 받는데 1분 가량이면 충분히 초고속인터넷 ADSL 이상의 빠른 속도로 휴대폰을 이용해 각종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F는 HSDPA가 빠른 데이터 통신 속도에 전국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서비스가 개시되면 빠른 속도로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개시 최대한 앞당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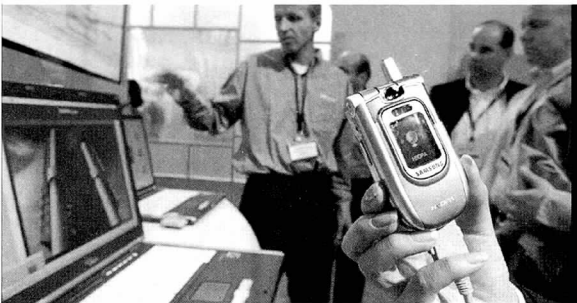
따라서 양사업자는 HSDPA 서비스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당초 HSDPA는 이르면 올 연말경, 또는 2007년 초에나 상용화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F는 오는 7, 8월경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는 W-CDMA가 기존의 EVDO 1x와 크게 차별화되지 못해 지난해 전체 가입자가 1만2000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고,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와이브로

보다 서비스가 많이 늦을 경우 경쟁력에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6000억원을 투자해 서울, 부산 등 23개시에 W-CDMA 및 HSDPA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매년 서비스 제공 지역을 늘려나가 오는 2009년에는 전국 84개시의 도심지 수요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KTF는 지난해 30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17개시에 기지국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45개시에 기지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F는 약 3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KTF의 HSDPA 서비스는 KT가 추진중인 와이브로 서비스와의 연계로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NTT도코모에 지분 10%를 매각한 것을 계기로 자동 글로벌 로밍 서비스 제공에 더욱 역점을 둘 방침이다.

더욱이 NTT도코모가 최근 KT·KTF와 함께 한·중·일 3국에서 W-CDMA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힘에 따라 KTF의 HSDPA 사업영역이 해외로 확장될 전망이다.

와이브로는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

SK텔레콤 KTF 두 이동사는 와이브로를 의식하면서도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와이브로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KT 역시 HSDPA와 일정부분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면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와이브로가 전송속도와 가격 측면의 비교우위를 점한 가운데 인터넷접속 중심으로 나아가는 반면, HSDPA는 이동성과 커버리지 측면의 잇점을 앞세워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되 음성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각각 포

지셔닝이 다르다는 것.

따라서 KT와 KTF, 그리고 SK텔레콤 등은 HSDPA와 와이브로가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더욱 짜임새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브로는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용량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HSDPA는 소용량이지만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와이브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기도 하다.

HSDPA는 올해 실제 다운로드 속도 1.8Mbps, 업로드 속도 384Kbps의 서비스로 출발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다운로드 7.2Mbps, 업로드 2Mbps로 속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와이브로와 비교, 속도면에서 절대 뒤질게 없단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편 HSDPA에 비견되는 LG텔레콤의 리비전A 역시 하반기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어서 2006년 국내 이동통신 환경은 본격적인 3.5G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K]

HSDPA·와이브로 비교

구분	HSDPA(1FA/1섹터 기준)	와이브로(1FA/1섹터 기준)
최대전송속도	2.0Mbps(상향)	6.1Mbps(상향)
	14.4Mbps(하향)	18.4Mbps(하향)
이동성	250Km/h	120Km/h
셀반경	4 Km	1 Km
주파수대역	2.0GHz	2.3GHz
표준화	3GPP(2002.6)	TTA(2004.6)
장비출시 시기	2005.6	2006.6
단말출시 시기	2005.5(카드)	2006.1Q(카드)
	2006.3Q(휴대폰형)	2006.3Q(휴대폰형)